

방송 건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주열* · 유혜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I. 서론	참고문헌
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III. 결론	

I. 서론

1. 연구배경

최근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개인의 생활 습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과 이들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alonde, 1974)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건강행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험이나 건강이익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부터 연구자들은 개인의 행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도구로 방송매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김정기, 1995), 특히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마케팅 전략으로 라디오, TV 등을 주요한 보건교육매체로 고려하고 있다(Novelli, 1981, 변종화, 1996). 방송매체가 보건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첫째, 매스미디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높은 신뢰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 셋째, 매스미디어는 건강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일반인들의 건강행위를 지속적으로 강화 및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다른 어떤 보건교육 매체보다 파급효과가 높은(Simpkins, 1984)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보건분야에서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우석균, 1995).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적절성, 수요자 요구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반 국민의 60% 정도가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건강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최은진, 1994)을 고려할 때,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방향성 설정은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방송매체 특히 라디오와 TV를 통한 보

건교육, 건강 캠페인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송매체에서 제공한 건강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 제공매체로서 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BS1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KBS, EBS, 의료건강 전문케이블 TV 및 SBS 라디오 등에서 2001년 4월 현재 진행 중이

거나 그 동안 진행된 건강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KBS가 4개, SBS, EBS, 의료건강 전문케이블 방송이 각각 1개로 프로그램 편성표를 이용하여 방송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건강 프로그램의 연도별 분포는 1997년 2개, 1998년 3개, 1999년 6개, 2000년 7개 등이다. 의료건강 전문케이블 방송의 경우 24시간 편성되어 있으나 재방송이 많아 2000년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의 편성표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 프로그램에서 다룬 건강정보의 내용을 형태 및 주제별(질병별, 건강생활행태별, 위험요인별,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 프로그램

방송국	프로그램	방송 시간 (방송소요시간)	방송기간	분석기간
KBS1 라디오	건강 365일	월~토요일(30분) 11시10분~11시 40분	1995년 3월~현재	1997년 11월 ~2000년 4월
KBS1 라디오	건강하게살시다	일요일(140분) 7시40분~10시	1997년 3월~현재	1997년 11월 ~2000년 3월
KBS2 라디오	명의특진	월~일요일(30분) 6시~6시 30분	1998년 3월 ~2000년 4월	1999년 11월 ~2000년 2월
KBS2 TV	건강TV 안녕하십니까?	월~토요일(30분) 6시~6시 30분	1998년 2월 ~2000년 4월	1999년 10월 ~2000년 3월
SBS 라디오	새 천년 명의와 함께	월~토요일(13분) 8시40분~8시53분	2000년 1월~현재	2000년 1월 ~2000년 8월
EBS TV	건강클리닉	토요일(40분) 8시40분~9시20분	1998년 1월~현재	1999년 5월 ~2000년 8월
케이블 TV	다숨방송 (채널 26)	0시~다음날 0시 (24시간)	1999년 3월6~현재	2000년 7월 31일 ~8월 6일

II. 연구결과 및 고찰

1. 형식분석

TV에서 건강정보는 KBS 2TV의 '건강 365일'과 같은 전문 건강프로그램, '종합병원'이나 '병원 24시' 같은 드라마,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 외에 교양 프로그램과 주부 대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운동 및 영양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일정 시간 할당하고 있다. 오락형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2000년 12월 현재 KBS 2TV에서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되는 '테마쇼 인체여행'이 있다. 인체에 얽힌 여러 가지 의문점을 집중 분석하고 실험해보며 시청자에게 손쉬운 건강 자가진단법과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사한 프로그램은 MBC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5분에서부터 8시 20분까지 방송되는 메디컬 쇼 '인체는 놀라워'가 있다. 한편, 의료건강 전문케이블 방송에서는 교양 다큐멘터리, 전문가 초청좌담 등의 형식으로 건강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TV에서 다루는 건강정보의 주제는 주요 질병의 치료 및 예방방법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의 문제 등 시사적인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뉴스에서 건강정보는 보건의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약품의 발견 또는 치료법 등을 소개하며 유행병이나 전염병에 관한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내용을 통하여 감정 호소도 동반하기 때문에 특정 메시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성적, 감성적 관심을 끌 수 있고 파급효과도 높일 수 있다.

라디오에서 건강프로그램의 총 방송시간은

2001년 4월 현재 KBS1, KBS2, SBS 등에서 주당 약 9시간 6분(578분)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KBS1 라디오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 10분에서 11시 40분까지 30분간 「건강365일」이 방송되며, 일요일에는 「일요 생방송 건강하게 삽시다」가 오전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방송되고 있다. KBS2 라디오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30분간 「명의특진」이, SBS 라디오에서는 오전 8시40분부터 13분간 「새 천년 명 의와 함께」가 건강프로그램으로 방송되고 있다. 방송사별로는 KBS1, KBS2, SBS 등의 순서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방송형식은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로 진행되거나 전문가의 강연, 전화 건강상담 등이며, 출연 전문가는 대부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다.

2. 내용분석

1) 주제별 분포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건강프로그램을 방송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라디오 방송이 2,197건으로 전체 분석내용의 84.7%였으며, TV방송은 396건으로 15.3%였다. KBS1 라디오의 「건강하게 삽시다」는 가장 폭 넓은 주제를 다루었는데, 질병과 운동에 관한 내용이 각각 16.6%로 가장 높았고, 클리닉 탐방이 0.3%로 가장 낮았다. 「건강 365일」에서는 질병 40.5%, 건강정보 17.1%, 의학적 소식 13.5% 등의 순서였으며, 약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KBS2 라디오의 「명의특진」에서는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질병에 대한 내용이 85.9%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과 건강정보에 관한 내용이 각각 1.9%로 가장 낮았다.

SBS 라디오 방송의 「새천년 명의와 함께」에서는 질병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한편, KBS2 TV의 「건강TV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질병 28.8%, 운동 19.3% 등으로 많았으며, 한의와 약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EBS의 「건강 클리닉」에서는 질병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의료전문 케이블 방송에서는 클리닉 탐방과 한의가 각각 27.3%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정보 16.7%, 질병 10.6%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프로그램의 주요 주제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질병, 운동, 의학계 소식, 건강정보 등이고 TV방송의 경우는 질병, 운동, 클리닉 탐방, 건강정보 등으로 두 방송매체에서 질병과 운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질병 관련 내용

건강프로그램에서 다룬 질병 내용을 질병 분류표에 따라 분석한 것은 <표 3>과 같다.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이 14.7%로 가장 높았고, 안과질환 9.4%, 정신 및

행동장애 7.8%, 족부질환 7.8%, 만성간질환/간경변증 6.9%, 구강질환 6.9% 등의 순서로 많았다. 「건강365일」에서는 예방의학이 13.7%로 가장 높았고, 근골격계/신경계질환 8.4%, 정신 및 행동장애가 5.8%였다. 「명의특진」에서는 예방의학이 10.8%로 가장 높았고, 근골격계/신경계질환 10.1%, 비뇨기/생식기질환 9.4%였다.

「새천년 명의특진」은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이 14.5%로 가장 높았고, 정신 및 행동장애9.8%, 심장질환 9.8%, 안과질환 8.3%였다. 「건강TV 안녕하십니까」에서는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이 14.2%로 가장 높았고, 호흡기계/기관지질환 9.9%, 족부질환 9.9%, 안과질환 7.0%였다. 「건강클리닉」에서는 비뇨기/생식기질환이 10.3%로 가장 높았고, 예방의학 8.0%, 근골격계/신경계질환 5.7%였다. 「다솜 케이블」에서는 기타 항목(61.1%)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산부인과 질환 22.2%, 예방의학 16.7%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강프로그램에서 다룬 질병내용은 근골격계/신경계질환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표 2> 주제별 분포

(단위: 회, %)

	라디오								TV					
	KBS1 건강하게 삽시다		KBS1 건강365일		KBS2 명의특진		SBS 새천년명의		KBS2 건강TV		EBS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질병	116	16.6	467	40.5	134	85.9	193	100	70	28.8	87	100	7	10.6
운동	116	16.6	94	8.2	5	3.2			47	19.3				
클리닉탐방	2	0.3	16	1.3					22	9.1			18	27.3
영양	15	2.2	118	10.3	3	1.9			20	8.2				
의학계소식	105	15.0	155	13.5					20	8.2				
한의	94	13.5	68	6.0	6	3.9							18	27.3
정신건강	21	3.0	22	2.0	5	3.2			7	2.9				
건강정보	42	6.0	197	17.1	3	1.9			17	7.0			11	16.7
기타	116	16.6	13	1.1					40	16.5			12	18.1
약	71	10.2												
계	698	100	1150	100	156	100	193	100	243	100	87	100	66	100

<표 3> 질병 관련 내용

(단위: %)

질 병	KBS1 R 건강하게 삼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 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 클리닉	다솜 케이블TV
뇌혈관질환	0.9	3.9	3.1			3.4	
심장질환	4.3	4.1	2.4	9.8	4.2	1.1	
고혈압성질환	1.7	2.1	1.6	6.7	1.4	1.1	
만성간질환/간경변증 결핵	6.9	1.1	2.4	6.7	2.8	1.1	
당뇨	2.6	1.5	2.4	6.2	2.8	1.1	
소화기계질환		0.4	3.8		1.4	2.3	
호흡기계/기관지질환	6.0	3.2	4.4		9.9	3.4	
신경계 및 감각기관	0.9	1.5	8.0	3.1	1.4	1.1	
순환기계질환	1.7	0.4	0.9		5.6		
위장질환	5.2	0.9	0.9		5.6	2.3	
비뇨기, 생식기질환	5.2	2.4	9.4	6.2	5.6	10.3	
정신 및 행동장애	7.8	5.8		9.8	2.8	4.6	
안과질환	9.4	5.4	7.3	8.3	7.0	2.3	
알레르기질환		0.9	0.9	3.1	1.4	1.1	
구강질환	6.9	3.6	4.4	3.1	2.8	1.1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2.6	0.9	2.4		2.8	1.1	
근골격계/신경계질환	14.7	8.4	10.1	14.5	14.2	5.7	
감염성/기생충질환		2.8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0.9	0.2	2.4			2.3	
산부인과질환	3.4	1.7	3.8			3.4	22.2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		2.1	1.6			2.3	
질병이환/사망원인		0.4	0.9			1.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1.7	1.9				1.1	
노년기질환	1.7	5.4	3.8		1.4	1.1	
이비인후과질환	2.6	2.4	3.8	3.1	1.7	1.1	
족부질환	7.8	1.3	8.6	6.7	9.9		
예방의학	1.7	13.7	10.8	6.2	5.6	8.0	16.7
기타	3.4	21.4		6.2	8.6	35.6	6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운동 관련 내용

분석대상인 7개 프로그램 중에서 4개 프로그램에서 운동을 주제로 다루어 총 232건이 방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예방운동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소개 38건, 임상운동 35건이었다. 임상운동에서 다룬 내용은 질환과 관련되어 이환 되었을 경우 등에 필요한 부분이며, 예방운동은 특정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방법을 다

룬 것이며, 운동소개는 새로운 운동이나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룬 것이다.

「건강하게 삼시다」에서는 예방운동이 74.1%로 가장 높았고, 운동소개 18.1%, 임상운동 7.8%로 방송되었다. 「건강365일」에서는 예방운동이 43%로 가장 높았고, 운동소개 20%, 임상운동 28%로 방송되었고, 「명의특진」과 「다솜 케이블 방송」에서는 예방운동만으로 구성되었다.

<표 4> 운동 관련 내용

(단위: 회, %)

	KBS1 R 건강하게 삼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임상운동	9	7.8	26	28.0						
예방운동	86	74.1	40	43.0	5	100.0				18 100.0
운동소개	21	18.1	27	29.0						
합계	116	100.0	93	100.0	5	100.0				18 100.0

운동에 관한 방송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5 참고), 1997년 2개 프로그램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현재 4개 프로그램이 운동을 주제로 다루었다. 1997년은 15건, 1998년 91건, 1999년은 91건, 2000년은 41건이 방송되었다. 내용별로는 임상운동 53건, 예방운동 131건, 운동소개 54건으로 예방운동이 높게 나타났다.

4) 영양 관련 내용

영양에 대해서는 3개 프로그램에서 137건이 방송되었다. 임상영양에서는 질환과 관련된 영양방법을 다루었으며, 예방영양에서는 올바른 영양섭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은 음식 만드는 법이나 새로운 영양소식 등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건강하게 삼시

<표 5> 연도별 운동의 세부내용

(단위: 회)

	KBS1 R 건강하게삼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다솜 케이블TV		
	임상	예방	소개	임상	예방	소개	임상	예방	소개	임상	예방	소개
1997		8		3	2	2						
1998	8	40		16	13	14						
1999	1	38	8	5	14	10		3		12		
2000			13	2	11	1		2		6		6

<표 6> 영양 관련 내용

(단위: 회, %)

	KBS1 R 건강하게 삼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 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 클리닉	다솜 케이블TV
임상영양			53	44.5						
예방영양			34	28.6	2	66.7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	15	100.0	32	26.9	1	33.3				
합계	100.0	100.0	119	100.0	3	100.0				

다」에서는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만을 다루었으며, 「건강 365일」에서는 임상영양이 44.5%로 가장 높았고, 예방영양 28.6%,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 26.9%로 나타났다. 「명의특진」에서는 예방영양이 2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이 1건(33.3%)이었다.

영양에 관한 방송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7 참고), 1997년에 16건, 1998년이 62건, 1999년이 42건, 2000년에 16건으로 총 137건이 방송되었다. 내용은 임상영양 52건, 예방영양 36건, 식품소개 및 영양소식 48건이 방송되어 임상영양이 가장 많이 방송되었다.

5) 의학적 소식 내용

의학적 소식은 국내소식과 국외소식 그리고

국내외를 모두 다룬 내용으로 나누었으며, 2개 프로그램에서 총 259건이 방송되었다. 국내소식은 168건으로 64.9%이며, 국외소식은 19건으로 7.3%이며, 국내외 소식은 72건으로 27.8%로 나타났다.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국내 의학적 소식만을 방송하였으며, 「건강 365일」에서는 국내외 소식이 46.8%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소식이 40.9%, 국외소식이 12.3%로 나타났다.

6) 한의학 관련 내용

4개 프로그램에서 한의학을 다루었는데, 방송된 내용을 질병 분류표에 따라 분석하면 <표 9>와 같다.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만성간질환/간경변증과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이 각각 10.6%로 가장 높았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이

<표 7> 연도별 영양의 세부내용

(단위: 회)

	KBS1 R 건강하게삽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임상	예방	소개 및 소식	임상	예방	소개 및 소식	임상	예방	소개 및 소식
1997			6	1	5	4			
1998			9	28	13	12			
1999				13	14	15			
2000				10	2	1	2		1

<표 8> 의학적 소식 내용

(단위: 회, %)

	KBS1 R 건강하게 삽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국내	105	100.0	63	40.9					
국외			19	12.3					
모두			72	46.8					
합계	105	100.0	154	100.0					

6.4%, 뇌혈관질환과 호흡기계/기관지질환과 족부질환이 각각 5.3%로 나타났다. 「건강 365일」에서는 예방의학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근골격계/신경계질환 8.8%, 노년기 질환 7.4%로 나타났다. 「명의특진」에서는 호흡기계/기관지질환, 신경계 및 감각기관, 정신 및 행동장애, 내분비·영양/대사질환, 산부인과질환이 모두 16.7%를 차지했다. 케이블방송에서는 예방의학이 22.2%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질환 16.7%, 알레르기질환과 노년기질환이 각각 11.1%, 신경계 및 감각기관 5.6%로 나타났다.

7) 정신건강 관련 내용

정신건강에서 다룬 내용을 정신질환 분류표에 따라 분석한 것은 <표 10>과 같다.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불안/공포와 연령별 정신건강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약물 오·남용이 4.6%로 가장 낮았다. 「건강 365일」에서는 스트레스가 72.7%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정신건강이 9.1%, 우울/조울증이 4.5%로 나타났다. 「명의특진」에서는 스트레스가 82.1%로 가장 높았다. 「건강TV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스트레스가 42.9%로 가장 높았다.

<표 9> 한의학에서 다룬 질병내용

(단위: %)

질 병	KBS1 R 건강하게 삽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 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 클리닉	다솜 케이블TV
뇌혈관질환	5.3	2.9					
고혈압성질환	2.1						
만성간질환/간경변증	10.6	2.9					
소화기계질환	1.1	4.4					
호흡기계/기관지질환	5.3	1.5	16.7				
신경계 및 감각기관		1.5	16.7				5.6
순환기계질환		1.5					
위장질환	1.1	4.4					
비뇨기, 생식기질환	1.1	5.9					
정신및행동장애		5.9	16.7				
안과질환		1.5					
알레르기질환		2.9					11.1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4.3	2.9	16.7				
근골격계/신경계질환	10.6	8.8					
산부인과질환	3.2	2.9	16.7				16.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질환	2.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6.4	1.5					
노년기질환	4.3	7.4					11.1
족부질환	5.3						
예방의학	1.1	16.2					22.2
기타	36.2	25.0	16.7				33.3
계	100.0	100.0	100.0				100.0

<표 10> 정신건강 관련 내용

(단위: %)

질병명	KBS1 R 건강하게 살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스트레스	9.1	72.7	82.1		42.9		
불안, 공포	13.6						
강박, 해리	9.1						
정신분열증	9.1						
연령별 특성	13.6	9.1					
약물오남용	4.6				14.2		
우울, 조울	9.1	4.5					
신체화장애	9.1						
기타	22.7	13.6	17.9		42.9		
계	100.0	100.0	100.0		100.0		

8) 건강정보 관련 내용

건강정보는 5개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다. 질병은 질병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의학소식을, 한의에서는 한의 치료법에 대한 소개 등을 다루었으며, 행동에서는 건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에서는 건강상담을 다루었다. 「건강하게 살시다」에서는 질병이 98%로 가장 높았고, 행동에 대한 내용이 2% 차지했다. 「건강 365일」에서는 질병

에 대한 내용이 54.1%로 가장 높았고, 행동이 14.8%, 상담에 대한 내용이 10.7%로 나타났다. 「명의특진」에서는 질병에 대한 것이 33.3%였고, 기타가 66.7%를 차지했다. 「건강TV 안녕하십니까」에서는 질병에 대해서 70.6%, 기타가 29.4%로 나타났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질병에 대한 내용이 18.2%, 행동이 9.1%로 나타났다.

<표 11> 건강정보 관련 내용

(단위: %)

내 용	KBS1 R 건강하게 살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질 병	98.0	54.1	33.3		70.6		18.2
한 의		1.5					
행 동	2.0	14.8					9.1
상 담		10.7					36.4
기 타		18.9	66.7		29.4		3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9) 기타 내용

기타에서 다른 내용은 크게 대체의학, 환경, 노화, 가족건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개 프로그램이 이러한 내용을 방송을 하였다.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노화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건강 33.6%, 대체의학 18.1%로 나타났다. 「건강 365일」에서는 대체의학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TV 안녕하십니까」에서는 대체의학이 2.5%이고, 그 외 내용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케이블 방송에서는 대체의학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과 가족건강이 16.7%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즉,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행위에 대한 정보, 생활지침의 제공이나 의료제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방송매체에서 건강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실정이다. 또한 시청취율이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방송계 실정에서 오락성이나 흥미위주가 아닌 건강프로그램은 시간 조정시 우선 순위가 낮아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으로 편성되고 있다.

셋째, 건강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별 내용을 살펴보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분야는

<표 12> 기타 내용

(단위: %)

내 용	KBS1 R 건강하게 삽시다	KBS1 R 건강365일	KBS2 R 명의특진	SBS R 새천년명의	KBS2 TV 건강TV	EBS TV 건강클리닉	다솜 케이블TV
대체의학	18.1	23.1			2.5		33.3
환 경	1.8						16.7
노 화	46.5						8.3
가족건강	33.6	15.4					16.7
기 타		61.5			97.5		25.0
계	100.0	100.0			100.0		100.0

3. 개선 방안

1)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KBS 1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KBS, EBS, 케이블 TV 및 SBS 라디오 등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그 동안 진행된 건강프로그램을 분석하였는데,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프로그램의 형식 및 구성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결과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의

보다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보건교육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

2)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개선방향

현재 건강프로그램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형식

건강프로그램의 형식은 뉴스, 드라마, 교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형식은 특정 질병에 대해 전문의들이 나와 설명하거나 상담하는 것 중심으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KBS 2TV와 EBS TV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강정보를 단독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활용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제한된 방송형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내용에 따라 방송형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퀴즈나 오락프로그램 형식과의 접목을 시도하여 시청취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도 있으며, 사회저명 인사들의 건강관리법 등을 소개하여 간접적으로 건강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시청취 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송형식을 따를 수 있다. 젊은층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중심의 방송형식을 준비한다거나, 유선 건강전문 방송국일 경우 일반인과 전문인을 구분하여 그 내용이나 형식에 차별화를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방송국 홈페이지 등 시청취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방적인 프로그램 제작이 아닌 시청

취자와 함께 건강방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나. 프로그램 내용

질병의 진단 방법 및 치료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 시청취자들의 폭넓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건강생활습관을 포함한 예방영역, 병의원 이용방법, 보건의료정책, 생활 속의 건강정보, 환자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건강인에게는 생활 속에서 평소에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에게는 주요 질환의 증세나 건강검진 정보가 필요하다.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질병의 관리 방법, 다른 환자의 질병 극복 체험기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제도와 관련된 정보는 건강상태별에 따른 특정 집단에 해당되기 보다는 건강인, 질병위험인,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대상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분되지만 실제로 방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방송대상자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3개 집단 모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방송 기획과정 및 운영과정에서 대상자에

<표 13> 건강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방향

대상	건강인	질병 위험인	환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건강관리 방법 · 예방접종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질환의 증세 · 건강검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 방법 · 환자체험 정보
공통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된 정보		

따른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시청취자의 대부분이 건강인 혹은 질병 위험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행위에 대한 정보와 지침의 제공이나 의료제도나 정책에 관련된 정보가 임상적인 치료와 관련된 정보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병의 치료는 동일한 질병의 경우에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방송프로그램을 접하는 시청취자의 잘못된 자가판단에 의하여 오히려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병 위주의 건강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상업성에 기반을 두거나 대중적 흥미 위주의 건강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건강프로그램으로서의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 시청취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질적 향상 및 방송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 프로그램 시간

건강방송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국민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Mudde, 1999)하기 때문에 시청취율에 따라 시간대를 조정하기보다는 고정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조사된 시청취자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운영방향 조사결과(유혜선, 2001)에 따르면, TV의 건강프로그램은 저녁 식사 시간 전후나 10시 이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라디오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프로그램방송시간은 방송매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건교육 효과를

고려할 때 15분~30분 정도가 적당하다(유혜선, 2001).

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건강프로그램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올바른 정보를 공급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방송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건강증진을 위한 방송 건강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Snegroff, 1983). 방송매체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실에 적합하고 유용한 건강프로그램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도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건강증진 행위에 대한 방송매체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강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Ⅲ. 결 론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욕구 증대와 질병양상 변화를 볼 때, 건강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책은 질병발생 후 치료에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예방을 우선하고 적극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보건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이에 비해 방송매체를 통한 방법은 시간 제약과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가장 많은 대중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 큰 힘을 갖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에 대한 교육·홍보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질병의 진단 및 처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의료와 관련된 방송은 전문인이 제작하거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관습적으로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청취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취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고려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과정에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 프로그램이 시·청취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질적 향상 및 방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방송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모든 프로그램별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건강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제한된 정보 및 인력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 모니터링을 시청취율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경우, 방송매체가 건강을 주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건강 프로그램은 신뢰성, 타당성을 가진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객관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담당자, 보

건의료 전문가, 방송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관심이 필요하며, 방송매체가 건강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기. 미디어 효과의 촉진제와 억제제로서의 수용자 활동. 언론과 사회, 1995.
- 김정기. 한국 성인의 텔레비전 시청만족도와 시청 동기, 시청태도, 시청행위, 시청프로그램의 상관성 연구. 언론과 사회, 1997.
- 변종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우석균. TV건강정보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유혜선. 건강방송프로그램 시청취 정도에 따른 건강행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 최은진. TV방송을 통한 건강정보 보급현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994. 4.
- Andersen RM. Revisiting the behavioral model and access to medical care: does it matt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95; 36: 1-10.
- Arnold DE, Holm RP. The quantity and qu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South Dakota Journal of Medicine* 1996; 42(2): 69-72.
- Novelli, W.D. Developing marketing programs in Frederickson, L.W., Solomon, L.J. & Brehoney, K.A., Marketing health

- behavior: principles, techniques and application, plenum, New York, 1981.
- Simpkin J. Mass medium communication and health. in Voight M., Dervin B.,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 Vol. 5, 1984.
- Bellicha T, McGrath J. Mass media approaches to reducing cardiovascular disease risk. *Public Health Report* 1990; 105(3):245-52.
- Frendly F. TV or not TV: Communicating health information to the public. *JAMA* 1992; 268(8): 1026-7.
- Mudde AN, De Vries H, The reach and effectiveness of a national mass media-led smoking cessation campaign in the Netherland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99; 89(3):346-50.
- Snegroff S. Health Education and Mass Communication. *Health Education* 1983; 14(3): 8-11.

<ABSTRACT>

A Study on Health Program of Broadcasting Media

Ju-Yul Lee* · Hae-Shun You**

*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ective program contents of information supplied by broadcasting media with the aim of developing health program models. Health programs which have been aired and are being aired on KBS1 radio, KBS, EBS, Cable TV and SBS radio were analyz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ssues of current health programs and to design a plan for improvement.

In order to address current issues of health programs, the range of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extended to meet various expectations from the public audience, in addition to dealing with diagnosis and treatment of illnesses. Programs should be capable of encompassing various issues such as health practice, prevention, information on medical facilities, public health policies, daily health information, and the role of patients. As health programs function as major information sources for health servic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quality and credibility of broadcasting. Broadcasting agencies has a responsible role for public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 programs.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broadcasting to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y, it is advisable to develop programs tha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is the cognition of the public and the level of demand in regard to health programs.

Key words : health program, broadcasting, health information